

## 협조요청문

### - 신입생 수련회 때 발생하는

### 여성비하적 행동들에 대하여

수신 : 각 단대 학생회, 과 학생회

발신 : 10대 총여 건준위

날짜 : 97/2/12

#### 들어가며

2월 신입생 수련회가 아마도 연세대학교에 들어와 대학생으로서 맞이하는 처음이자 가장 큰 행사일 것입니다. 어쩌면 4년의 대학 생활 중에서 수련회가 차지하는 부분은 극히 작다고 할 수도 있지만, '첫' 행사라는 의미에서 신입생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신입생들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차이점 그리고 공통점들을 깨닫게 되고, 대학 생활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꿈도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 의식도 생기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 수련회時 여성 비하적 행동의 사례

사례 1) 제목 : 연세대학교 탱크주의

남자 역할 : 1.5L 콜라병은 다리 사이에 두고 서 있다. '기계'인 척.

여자 역할 : 연구원 역할로, 펜으로 콜라병을 치면서 "역시 튼튼하군요... 탱크주의...."

사례2) 제목 : 밀키웨이

남자역할 : 한 남학우는 중간에서 자위하는 시늉, 주변에서 약 20명 정도의 남학우들이 신음소리를 내면서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여자역할 : "엄마!"라고 부르면 휴지 한 장 갖다준다.

모두함께 : "밀키웨이!!"

사례3) 게임 벌칙 - 여자를 눕혀놓고 위에서 남자가 팔굽히기를 한다.

사례4)술 마시면서 부르는 노래 -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꼬부랑.....(중략)...강간당했네 강간당했네...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만약 몇몇 학우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야, 동기 사랑 나라 사랑이잖냐. 왜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앞으로 대학 생활 어떻게 사려고..." 등의 반응이 나옵니다. 또는 "선배들도 그랬다." 여학우들이 좀 많은 경우에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놀이들이 재미있고, 처음으로 대학생이 돼 자유를 만끽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여학우들도 즐기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자기가 성적인 모욕을 느껴도 그것을 말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아왔으며, 문제제기를 하면 '매장'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솔직한 감정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위의 사례들은 단순히 음란성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남성성의 과시와 그 속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성적 모욕감입니다.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이것이 바로 성추행입니다.**

물론, 이것이 개개인의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회의 가부장적 권력의 문제이며 또한 남성/여성들이 받은 교육의 문제일 것입니다.

여학우들은 그 당시 느끼게 되는 모욕감과 수치심을 쉽게 잊지 못합니다. 성적인 요구들(웬 내숭?)과 '동기'일 요구(여자가 처음부터 밝히냐?)라는 이중적 기준 속에서 심한 갈등과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이후에 여학우들과 남학우들 사이를 갈라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0대 총여 건준위에서는 이러한 가부장적 요소들을 대학 내에서 근절시키기 위해 수련회 이후에 사례들을 모아 공론화시킬 예정입니다. 인격적 공격이 아닌, 왜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 **1. 처음부터 방지하도록 노력합시다.**

"선배들은 작년에 이랬지만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니 너희는 하지 말아라"

#### **2. "어린 신입생들은 아무 것도 모르니 무시하자"라는 방관적 태도를 취하지 맙시다.**

이러한 방관은 심각한 사회정치적 사안을 정당화시키는 태도입니다.

#### **3. 이러한 행동이 일어난 이후에라도 토론의 장을 마련합시다.**

왜 여성들은 불쾌감을 느끼는가, 그리고 이것이 왜 가부장제의 문제인가에 대한 토론. 서로 솔직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신입생들이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는 토론일 수가 있습니다.

#### **4. 신입생 스스로가 되돌아보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 **5. 만약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총여건준위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함께 적절한 실천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